

외국 IT 기업에 대한 러시아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 개설 의무 부과

2021년 7월 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인터넷 분야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외국 IT 기업에 대하여 러시아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 개설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정식명칭: 외국인의 러시아 내 인터넷상 활동에 관한 연방법률(제236-FZ호, 2021.07.01.))(이하 '본 법률')에 서명하였습니다. 본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진 경과

- 2021.05.21. 법안(정식명칭: 외국인의 러시아 내 인터넷상 활동에 관한 연방법률안 제1176731-7호) 하원 상정
- 2021.06.17. 하원 통과
- 2021.06.23. 상원 통과
- 2021.07.01. 대통령 서명 및 공포

2. 러시아 지점 및 대표사무소 개설 의무화 적용 대상

일일 기준(즉, 24시간 이내)으로 러시아 인터넷 사용자 50만 명 이상이 접속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또는 정보시스템 및/또는 IT프로그램(이하 '인터넷 플랫폼')의 운영자이면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해당되는 외국 IT 기업은 러시아에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 개설 의무를 부담합니다.

- 1) 운영하는 인터넷 플랫폼에서 러시아어, 러시아 자치공화국 공식언어 또는 기타 민족어로 정보가 제공/배포되는 경우
- 2) 운영하는 인터넷 플랫폼에서 러시아 내 소비자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광고가 배포되는 경우
- 3) 러시아에 소재한 사용자의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4) 러시아 개인 및 러시아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는 경우



장성 수석자문위원
(모스크바 사무소장)
T. 82-2-6200-0941
E. schang@jipyong.com



이승민 선임 외국변호사(러시아)
T. 82-2-6200-1772
E. smlee@jipyong.com



정다희 외국변호사(러시아)
T. 82-2-6200-1845
E. dhjung@jipyong.com



박정민 주임연구원
E. jmp@jipyong.com

2021년 11월 22일 러시아 연방통신감독청(Роскомнадзор, 이하 ‘**러시아 연방통신감독청**’)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목록에 따르면, 현재 이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 IT 기업 중 러시아에 지사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회사 및 서비스는 구글(구글플레이, 유튜브, 유튜브 뮤직, 구글챗, 지메일), 애플(iCloud, 앱 스토어, 애플 뮤직), 메타 플랫폼스(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트위터, 틱톡, 텔레그램, 줌(Zoom), Viber, Spotify, Likeme Pte. Ltd (Likee), Discord, Pinterest, Twitch를 포함하여 총 13개입니다.

본 법률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 IT 기업들은 2021년 7월 1일부터 아래 1)항 및 2)항 의무를, 2022년 1월 1일부터는 3)항의 의무까지 준수해야 합니다.

- 1) 러시아 연방통신감독청이 규정한 요건에 따라 인터넷 플랫폼에 러시아인 및 러시아 법인을 위한 전자민원서식을 게재할 것
- 2) 러시아 연방통신감독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개인 계정(личный кабинет)을 등록하고 이를 정부기관에 협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
 - * 개인 계정을 통해 러시아 내 설립한 법인 및 개설한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3) 러시아 내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인을 설립할 것

3. 결론 및 시사점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인터넷 분야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외국 IT 기업들 중 법률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활동을 감독하기 위해 러시아 내에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를 반드시 개설할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상기 의무를 위반할 경우, 러시아 연방통신감독청의 권한으로 인터넷 플랫폼상 광고 게재 및 배포 금지, 러시아인 및 러시아 법인으로부터의 자금 수령 제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국가간 전송 금지, 인터넷 플랫폼 차단 등의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IT기업도 본 법률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관련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